



남원 죽항동,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운영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죽항동이 꾸준히 추진해 온 '1일 1가구 소통 행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단순 발급 민원 처리 지역에 따른 불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20여 종의 주요 민원서류로, 지문 인증을 통해 신분증 없이도 발급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임접숙 죽항동장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통 속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실제 행정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게임과학고, 알기 쉬운 발명·특허 특강 개최

원주군에 위치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지난 25일, 발명·특허 특강을 개최하며 지식재산 교육에 바지를 가졌다. 이번 특강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발명·특허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게임과학고는 전북 지역 대표 거점학교로 선정돼 행사를 주최했다.

이날 특강은 작년에 MOU를 맺은 전북대학교 지식재산인력양성 사업단 전담 교수이자 변리사 이철 강사를 초청,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중요성,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특허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사는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창의성과 기술력을 보호하는 핵심 도구"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 용지면, 내 지역 김제 주소 갖기' 캠페인 추진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26일 관내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내 지역 김제 주소 갖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 지역 김제 주소 갖기' 홍보를 통해 김제 시의 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마을 곳곳을 돌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입 혜택 안내와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요령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내 지역 김제 주소 갖기 캠페인은 우리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관내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소갖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입 장려금(1인당 20만 원), 전입 이사비(세대당 30만 원),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청년 부부 주택수당 지원, 대학생 생활 안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용지면 서정마을, 하반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서정마을 경로당에서 마을이장을 포함한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정보화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정보통신과 주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스마트폰 기본기능 조작법, 카카오톡 사용법, 키오스크 체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 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을 보다 쉽고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정마을 이장은 "평소 디지털 기기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정보화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실생활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외 장학생 대거 배출... 글로벌 무대 진출 발판

전북대 무용학과, JD-KSDF 성과로 ADF·독일 Folkwang 등 장학 프로그램 선발 잇따라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무용 교육기관의 장학 프로그램에 대거 선발되며 글로벌 무대 진출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3~9일 본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연습실에서 열린 2025 JD-KSDF(JEONJU·DAEJEON·DAEGU Korea Summer Dance Festival)가 기회가 됐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 축제는 전북대 무용학과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국내외 교수진이 참여하는 현대무용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적 인목과 실습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워크숍 성과를 공유하는 쇼케이스와 함께 장학생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전북대 무용학과 이경원 학생이 2026 ADF(American Dance Festival) 전액 장학생에 선발된 것을 비롯해 정세현·김소윤 학생도 2027 ADF 전액 장학생으로 뽑혔다.

또한 정세현·고운 학생은 독일 Folkwang 예술대학교 Guest Program 진출 기회를 잡았다. 이은서 학생은 태성 육성장학재단 ADF 프로그램(2026) 장학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경원 학생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무용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이번에 재개된 이번 패스티벌의 값진 성과"라며 "이 축제가 단순한 무용 축제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무용 예술을 무대에서 경험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부설초 국악관현악단, 초중등부 단체부문 대상

전주부설초등학교 천년의 소리 국악관현악단이 지난 24일 열린 제16회 뮤지컬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초중등부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제16회 대회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한 바 있는 전주부설초는 사계절의 멋과 향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멋으로 사는 세상 이란 곡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환성 교장은 "천년의 소리 국악관현악단이 한뜻으로 一人口步 不女百人一步(일인백보 불여 백인일보)의 자세로 무더운 방학 동안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연습한 결과, 이렇게 멋진 결실로 이어져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확산... IBK·소진공 등 동참

정읍시가 지난 6월 시작한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IBK기업은행 정읍지점(지점장 전종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읍센터(센터장 김지연), 정읍시지역활력센터(센터장 조인석)가 힘을 보태며 캠페인 확산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범시민운동은 인구 10만 명 이상 상시 유지와 생활인구 월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주민 전입 정읍애 주소갖기' △시계절 체류인구 확대 정읍애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정읍애 함께살기'의 3대 전략을 축으로 민·관 협력을 품墀히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정읍애 주소갖기'는 인구 10만 1006명(8월 22일 기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속적인 김소세를 되돌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다.

전입과 정착을 돋는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했다. △전입 지원금(세대원 1인당 15만원) △전인대학생 거주비용(연 50만원) △전인첨년 이자비(최고 50만원) △출생축하금(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500만원·넷째 이상 1000만원) △유아수당(59개월 이하 유아 20만원)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 최장 10년) 등으로 전입자의 정착과 삶의 질을 뒷받침한다.

캠페인 동참 기관들도 분야별 실천인을 내놨다. IBK기업은행은 정읍시장과 함께 지역농산물을 소개하는 전시회에 참여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동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온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동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읍센터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정읍시지역활력센터는 주민 주도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체류 매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활동의 근간"이라며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민과 모든 기관·단체가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석대 한승현,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서 금·은 획득

우석대학교 스포츠단 사격부 소속 한승현(체육학과 3년) 학생이 카자흐스탄 심켄트에서 개최된 2025 ASC 심켄트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획득하며 기량을 입증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는 16~30일까지 심켄트 사격 플라자에서 28개국에서 734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격 대회다.

한승현 학생은 26일 열린 여자 25m 권총 주니어 단체전에서 남부대학교 원체은·김예진 학생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해 총점 1714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26일 열린 여자 10m 공기권총 주니어 개인전에서도 한승현 학생은 본선 572점과 결선 237.6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한승현 학생은 이번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사격의 미래를 밝히는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한승현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큰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노준 총장은 "한승현 학생의 이번 성과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결과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실력 있는 인재'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이 잠재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순창군, 제22회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 실시

순창군이 과학영농을 선도할 농업리더 양성을 위해 제22회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여수 라마다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렸으며,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 본부·4-H연합회 등 4개 단체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금번하는 농업 환경을 이해하고 회원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활성화해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여름철 폭염 속 안전 농작업 요령과 안전사고 사례를 딴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과학영농 우수사례, 병해충 방제 기술, 청년농업인 활동 사례 발표, 회의 진행 기법 교육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특히 25일에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현장을 찾아 "농업인이 함께하는 농업"을 주제로 2시간 기량 특강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 군수는 "농업은 순창의 뿌리이자 미래를 열어갈 핵심 동력"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농업인 여러분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주역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해경,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안내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우수 인재 확보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일정을 알리고 지원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총 7개 분야에서 200명의 해양경찰공무원을 채용하며, 서해해경은 합정요원·수사·외국어(중어) 등 3개 분야에서 4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 절차 및 세부 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생덕 서장은 "이번 채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해양 분야에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